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게

<1> 프롤로그

방송 낱씨를 잡아가며 기다리는 TV 프로 그래프 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EBS 1)와 ‘TV동물동장’(SBS)이다. 일정상 분방 시청을 하지 못한 날이면 주말 ‘다시보기’를 통해 빠짐없이 찾아보곤 한다. 최근 새로 시작된 ‘개는 훌륭하다’(KBS2)와 ‘나옴은 페이크다’(tvN)도 눈여겨 보고 있다.

극장가에는 연초부터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 동물과 소통하는 의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 ‘닥터 두리틀’이 지난 8일 개봉됐고 동물인 척 해야 하는 동물원 직원들의 이야기 ‘해치지 않아’(15일), 동물의 말소리를 알아듣게 된 국정원 요원을 다룬 ‘미스터 주’(22일)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에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스타 동물들도 많다. 이들 중 간식과 용품, 의류 등을 소개하며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동물들도 상당하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  
유튜브 등 SNS 통해 인기 과시  
영양·보양 제품도 판매량 늘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 4·5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다. 방송사마다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할 만큼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동물은 동물답게 키워야 한다”, “나 먹고 살기도 벅찬데 동물에게 돈을 쓰는 건 마땅찮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경제 이상의 효과를 준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다.

광주일보의 반려동물과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세상을 꿈꾸며 ‘행복한 동행’을 연재한다.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반려묘의 이야기는 물론 이웃의 희귀 반려동물, 아픔을 딛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나서는 동물보호소의 유기견(묘), 동물 입양 절차와 수칙 등을 통해 입양문화를 독려하고자 한다.

또 동물병원의 24시, 전문 훈련사에게 배우는 문제행동 교정, 반려견과 동행할 수 있는 카페와 식당, 애견운동장과 애견 유치원의 하루,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 첫 번째는, 강아지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택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족사랑 1순위’가 되어버린 필자의 반려견 ‘윤사랑’이 진짜 우리집 가족이 된 이야기다.

“가족이 된 반려동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이가 우리 식구 된 이야기

가족회의 통해 ‘말티즈’ 입양 결정  
가족이 된 날부터 존중·배려 배워  
벌써 3년...일상이 된 웃음·대화



반려동물 천만시대, 반려인들에게 동물은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다. 한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이들과의 ‘행동한 동행’을 꿈꿔본다.

첫째 아이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에 같이 생기면 괜히 긴장하곤 했다. 원장 선생님의 반려강아지 ‘망치’를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망치는 유독 가까이 다가가 발냄새를 맡곤 했다. 강아지를 무서워했던 탓에 몸집이 작은 말티즈였음에도 발 끝에 닿는 촉감조차 심장을 쫓겨 했다.

반면 아이들은 망치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망치 덕분에 학원을 꾸준히 다니는 이유도 있었다. “엄마 생전에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 일은 없을 테니, 어른 되어 독립하면 그때 키워라” 단단히 뜻을 박았던 터라 고집을 피우지 못했고 학원이나 친구집 강아지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모녀간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래 친구 엄마들과 만나서 신선한탄을 하며 서로를 위로하는게 전부였다. 그러던 중 새끼 고양이를 키우게 됐다는 친구네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생겼다.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아기고양이었다. 사실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싫어했던 터라,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힐끗힐끗 쳐다보게 됐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기고양이가 눈앞에 아른거리는게 신기할 정도였다.

이 정도면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춘기 자녀가 있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좋다는 주위 이야기가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다. 그날 바로 가족회의를 했고, 가족 모두 강아지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 ‘1년 후’ 데려오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강아지와 관련된 책을 3권을 구입해 가족 모두가 읽었고 아이들은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강아지가 오면 각자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어느새 약속한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사이 집 근처 애견숍을 여러차례 다니기도 했다. 어떤 종으로 선택해야 할지 직접 보고 결정하고 싶었다. 우리 가족의 선택은 몸집이 작고 털이 많이 빠지지 않으며 애교가 많은 ‘말티즈’였다.

지인의 소개로 미리 가입했던 인터넷 ‘말티즈’ 관련 카페에서 운이 좋게도 갓 태어난 새끼 말티즈 분양 소식을 접했다. 애견숍이 아닌 가정견 분양이라는 점이 좋았다. 문제는 거리였다. 광주에서 창원까지 230km, 왕복 7시간이 소요되는 곳이었다.

사랑이가 우리 가족이 되려고 그랬던 건지 깊은 고민 없이 선택을 했다. 동생을 직접 맞이하기 위해 딸, 아들까지 모두 출동했다. 광주에서 창원까지 매우 먼 거리였음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달렸다. 휴게소는 딱 한차례 멈췄을 뿐이었다.

어미가 낳은 새끼 말티즈는 사랑이를 포함해 총 4마리. 그 중 사랑이는 맏이었다. 첫째 ‘사랑이’와 둘째 남동생 ‘하늘이’를 데리고 바로 출발했다. 하늘이는 첫째아이 친구네가 분양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소중한 반려견 사랑이와 함께 한 지 3년.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멈추질 않는다.



창원에서 출발해 다시 광주까지 오던 3시간 30분 동안, 무려 4곳의 휴게소에 들러야 했다. 말미를 하지 않은지, 대소변을 봤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살펴야 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앉았다만 우리 가족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장 컸던 기억이다.

그렇게 사랑이는 우리 가족이 됐다. 가장 늦게 태어났으므로 당연히 막내다. 이름은 ‘윤사랑’, ‘이사랑’으로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반대가 있어 양보했다.

사랑이를 입양하기 전부터 무려 일년 동안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한 덕에 지난 3년동안 큰 병치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까칠했던 사춘기 딸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고 장난꾸러기 둘째의 행동도 조심스러워졌다. 가족들간의 대화가 많아진 것도, 사랑이를 중심으로 한 공간에 모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오는 15일이면 사랑이의 세 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다. 케이크는 못 먹더라도 모두 모여 축하파티를 해줄 계획이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사랑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릴 것을 약속한다. 사랑이는 진짜 우리가족이니까.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행복한 동행’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자랑하고 싶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집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진(원본파일)과 이름, 나이, 특징, 연락처 등 간단한 소개를 전자우편(yoonsarang\_love@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시무식” 및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시무식”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